

변화와 미래 발전 위한 '2040 비전 선포'

인천환경공단, 창립 18년 즈음 인천환경 미래 책임 선도하는 4대 전략 12개 과제 선정 제시

인천환경공단이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8년차를 맞아 변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204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의 성장과 노력을 돌아보고 변화와 미래 발전을 향한 17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행사는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동호회의 멋진 공연으로 내·외빈을 맞이하며 지난 17년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역대 이사장과 시민 서포터즈, 퇴직직원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어지는 2040 비전 선포식에서는 '인천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하는 인천환경공단'이라는 비전 선포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2040 비전은 지난 17년간 환경전문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인천시 주요환경계획과 연계해 설정됐다.

비전에서는 인천환경의 미래를 책임질 선행 4대 전략인 △시설 선진화 △공공성 강화 △재정 건전화 △조직원 효율화와 8대 과제, 미래를 선도하는 4대 전략인 △안전한 환경시설 운영 △완벽한 자원순환 실현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편리한 환경정보 제공과 12대 과제가 설정돼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하수처리장 4곳과 위생처리시설 2

곳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오염물질 처리량은 하수처리량 일 54만톤에서 72만톤으로 1.3배, 분뇨처리량 일 1743톤에서 2425톤으로 1.4배, 생활폐기물 처리량 357톤에서 666톤으로 1.9배, 음식물처리량 76톤에서 160톤으로 1.9배 증가했다.

그동안 처리한 하수는 38억8000만톤, 생활폐기물은 402만 톤이며 제거한 오염물질은 142만톤에 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최대 86% 감축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인천을 만들어왔다.

출범시 1실 2본부 8사업소 278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현재 2실 3본부 8사업소 584명으로 인천의 발전 규모와 함께 조직 규모도 확장됐다. 또 '2012년 전국환경공단 중 가등급(1위)' '2013년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2023년 윌터코리아 경진

대회 환경부장관상(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공하수기술인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공단은 올해도 '대한민국 1위 환경기업' 인천환경공단을 목표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자원순환 100%달성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환경서비스 고도화 달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전은 환경진화를 위한 국제적 방향과 국가의 환경정책, 인천시 시장철학을 반영해 심도 있게 설정했다"며 "비전 달성을 통해 인천의 환경을 책임지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선진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안테나

미추홀구 '기초·생활 문해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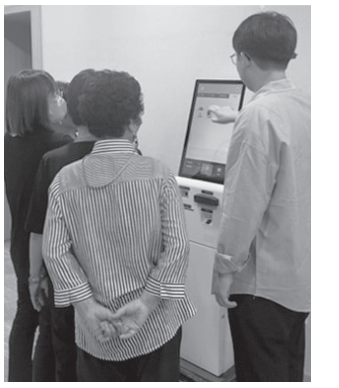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 21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생활 문해학습관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에게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생활 문해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중년·고령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인 안내기 사용법, 건강 문해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변화에 맞춰가며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성인문해교실 생활 문해: 알파벳 기초, 표현 익히기' '성인문해교실 생활 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내 몸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체질 개선을 통한 건강 관리' 등의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각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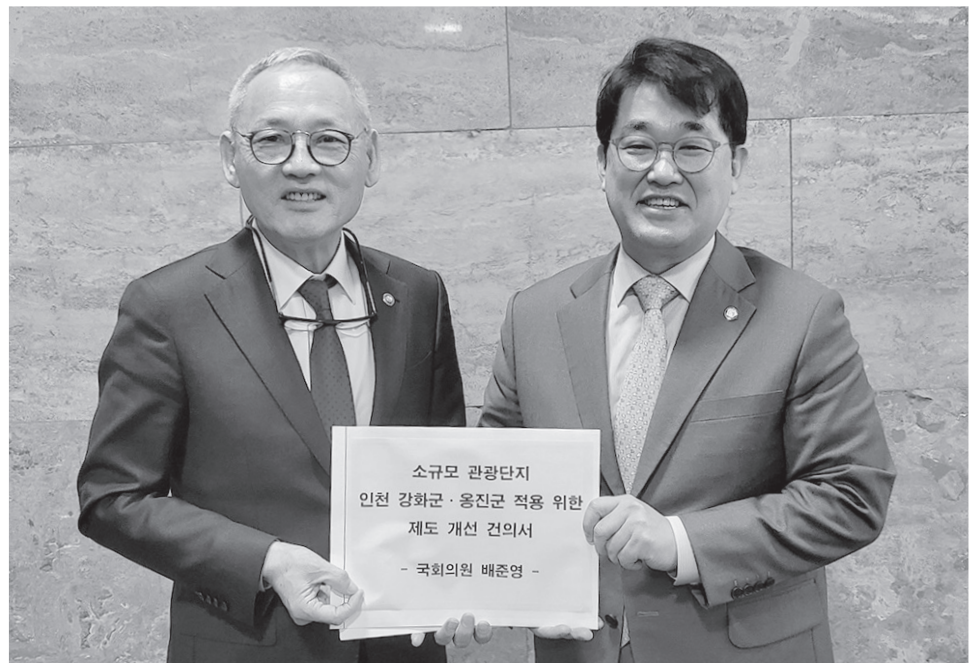
배준영 의원, 유인촌 장관 만나 '강화·옹진군 대상에 포함돼야'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총 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을 5만㎡~30만㎡로 낮추고 필수시설 설치 완화와 승인권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 수도권 중 인

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강화

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섬 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도 고통 받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위치를 이유만으로 대상에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며 "전달해주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담을 바친 뒤 배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평화안보 측면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법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강화·옹진 1기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안종삼 기자

인천경제청,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빙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일반제조·충전·저장소 등 고압가스시설 총 4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압가스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용자 자체 및 현장 표본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고 현장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자체 점검 미 실시 및 부실 점검 업체,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별 안전관리 규정 이행 △허가·신고 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각종 법정검사의 수검 여부 등이다. 특히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는 안전 관리자의 조종조치가 매우 중요해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부재시 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세진 환경녹지과장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비싼 농기계 사자말고 빌려주세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강화군(5곳), 옹진군(9곳) 총 14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의해 강화·옹진군민 이거나 강화·옹진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토지대장(농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회원가입 후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다만 농기계가 예약되거나 임대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추·설 연휴 및 공휴일 제외하고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임대 기간은 3일간이다.

안종삼 기자

기술력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 판로 지원

인천조달청, 강화 현장 소통 에너지컨설팅 제조공장 찾아

인천지방조달청이 21일 민생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에너지컨설팅 제조공장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소통에 나섰다.

조달청은 기술이나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에너지컨설팅은 지열히트펌프 제조업체로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증 받은 업체다. 이 제품은 지열을 저장하는 축열탱크(리사이클링탱크)를 이용해 시스템 성능계수(COP)를 향상시킴으로써 평균소비전력을 15%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지열 냉난방시스템이다.

강신면 인천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대상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혁신기업들과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미추홀구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개원

용현자이크레스트 단지 고운·꿈가득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실 등 갖춰

미추홀구가 21일 용현자이크레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 고운·꿈가득 어린이집 등 2개소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한 어린이집 2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편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후 국공립으로 재개원했다.

고운어린이집은 45명, 꿈가득 어린이집은 37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실, 유희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이영훈 구청장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원장님과 보육 교직원들께서도 세심한 돌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학의동과 주안동 등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논의

지하도상가활성화 회의 열어 공제보험료·관리비 일부 지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하도상가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인천시의회의 의원, 임차인 추천자, 마케팅 관련 대학교수, 시설공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도 위촉할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인천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임·전차인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누가 상가를 직접 영업할지를 결정해 대다

수 점포가 직영화로 전환했고 현재는 상위 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가 개정조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의에는 이명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분야별 관계자가 참석해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공공용 통로 부분 관리비 약 38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14개 상가에 마케팅비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공공용 통



로부문의 공제보험료 약 3500만원을 지원하고 개정조례 이후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주요 설비들과 시설물도 보수·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여성청소년 HPV 예방 접종 독려

인천시가 여성 청소년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독려에 나섰다.

12~17세의 여성 청소년은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청소년에게 충분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학 전 접종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자궁경부암 90%, 기타 주요 질환의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안전한 백신으로 전 세계 122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다.

올해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12~17세(06~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7~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이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06년생 여성,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오는 12월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4세 이전 1차 접종 시 총 2회, 15세 이후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종삼 기자